

해외조림사업 적극추진

금년부터 호주 등 海外山林資源國의 林地에 우리나라의 木材 관련업체가 직접 조림을 하여 목재를 도입하는 海外造林事業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山林廳에 따르면, 금년부터 베트남 등 5개국에 조림사업을 실시키 위하여 관련기업이 금년중 造林妥當性調査와 投資計劃 검토를 마치면 빠르면 금년부터 現地造林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山林廳은 熱帶林의 고갈과 국제적 환경보호운동에 대응차원에서 2020년까지 호주·뉴질랜드·칠레 등에 30만ha의 해외임지 확보를 목표로 금년부터 호주·뉴질랜드·베트남 등에 대한 현지개발투자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20년 후에는 연간 약 6백만㎡의 해외조림 원목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해외산림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山林廳은 금년부터 해외산림개발, 특히 海外造林사업에 나서는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投資與件 事前調査費의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해외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山林開發基金에서 長期·低利로 융자지원 하는 등 제반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현재 해외조림사업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베트남, 濠洲,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트남에는 세양코스모(주), 이견산업(주), 중앙목재산업(주) 등 3개업체가 조림투자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중에는 세양코스모(주)가 동나이지역에 6백ha에 대한 조림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濠洲에는 한솔종합임산(주)가 西濠洲지역에 금년중 5백ha에 대한 조림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1천ha씩 조림규모를 늘려 향후 10년간 1만ha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한국남방개발이 칼리만탄지역 5백ha를 각각 조림할 계획으로 투자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해외조림투자 국별 추진업체

진출예정국가	추진업체	조림면적(전기간계획)
베트남	세양코스모, 이견산업, 중앙목재산업	34,000ha
호주	한솔종합임산	10,000ha
인도네시아	한국남방개발	20,000ha
미국	동해펠프	15,000ha
기타	뉴질랜드 등	-